유치원의 소인수 혼합반 현황

이윤진 부연구위원

본고에서는 소인수 혼합반을 운영하는 1,04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의 소인수 혼합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소인수 혼합반의 평균 학급수는 1.25개, 교직원수는 2.93명, 유아정원수는 21.21명, 유아재원아수는 18.53명으로 집계되었다. 소인수 혼합반을 운영하는 이유는 '인근 지역에 유아수가 적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운영 이유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은 '유아수가 적어서'라기 보다는 '인가받은 학급수가 적어서'가 혼합반 운영의 첫 번째 이유였다. 혼합반에서의 수업은 주로 특정연령에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수업시간을 안배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혼합반을 운영하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연령별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소인수 혼합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4년제 대학 졸업자 50.6%, 대학원 졸업자 38.0% 등 대부분이 고학력자이면서 2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풍부한 우수한 인력들이 주를 이루었다.

1. 들어가며

유치원의 소인수 혼합반에 관심을 갖게 된 주요한 배경은 2012년 3월부터 시행될 '5세 누리과정'[1]이라 하겠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만 5세아를 만 3~4세와 분리하여"(국무총리실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2011. 5. 2 보도자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소인수 혼합반에서 5세 누리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인수 혼합반의 운영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기본교육과정시간대에 연령별 혼합반을 운영하는 소인수 혼합반의 유치원 현황을 다루려고 한다. 이러한 소인수 혼합반은 인구가 적은 농어촌

* 본고는 2010년 유아교육선진회 기반조성사업의 하나인「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운영: 5세 누리과정 운영을 중심으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1) '5세 누리과정'이란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에게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재구성, 일원화한 교육 · 보육과정을 의미한다. 5세 누리과정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명칭이다.

지역의 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소인수 혼합반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한 기초연구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면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각종 수치와 현황들은 소인수 혼합반을 이해하는 데 일조하리라 기대한다.

2. 조사개요

소인수 혼합반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40명이 표집되었는데[2] 이 중 국공립이 1,026개로 98.7%를 차지하여 소인수 혼합반[3]의 대부분은 국공립유치원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국공립유치원 중 학급이 1개인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대부분이었다. 사립유치원에서 소인수 혼합반은 총 14개가 표집되어 1.3%를 차지하였다. 14개 사립유치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11개, 대전 2개, 부산 1개로 78.6%가 서울에서 표집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이 21.3%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경기가 21.2%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대전/충청 15.5%, 부산/울산/경남 14.6%, 대구/경북 11.0% 순이며 소인수 학급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로 3.6%였다.

교사연령은 과반 이상인 53.7%가 40대가 가장 많으며 30대 26.0%, 20대 14.4% 순으로 나타났

〈 표 1 〉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 체	1,040	100.0
설립별		
공립	1,026	98.7
사립	14	1.3
지역		
서울	37	3.6
인천/경기	220	21.2
대전/충청	161	15.5
광주/전라	221	21.3
대구/경북	114	11.0
부산/울산/경남	152	14.6
강원	81	7.8
제주	54	5.2
교사연령별		
20대	150	14.4
30대	270	26.0
40대	558	53.7
50대 이상	62	6.0
교사경력별		
10년 미만	345	33.2
10~20년 미만	227	21.8
20~30년 미만	445	42.8
30년 이상	23	2.2
교사학력별		
전문대졸	119	11.4
대졸	526	50.6
대학원졸	395	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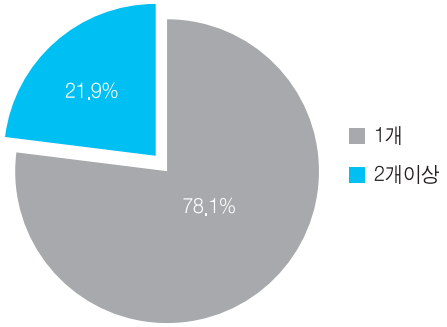
2) 유치원 모집단 8,388개에서 무작위로 추출함.
3) 학급수가 재원아수에 비해 적어서 연령을 혼합하여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급을 뜻함. 본 연구에서는 만5세를 중심으로 만 3, 4, 5세 혼합반이거나 만4, 5세 혼합반이 해당됨.

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유치원이 젊은 교사가 주를 이루는 현상과 대비된다. 교사연령이 대체로 높기 때문에 교사경력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경력은 20~30년 미만 근무가 42.8%로 가장 많았다. 10년 미만 경력이 33.2%, 10~20년 미만이 21.8%를 차지하였다. 앞에서 교사연령이 40대가 가장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대개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20대 초중반 경에 유치원 교사를 시작했고 2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안정성을 말해준다.

교사학력은 4년제 졸업이 50.6%, 대학원 졸업이 38.0%로 소인수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의 절대다수(약 89%)가 고학력자임을 알 수 있다. 교사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소인수 혼합반을 담당하는 대다수 교사의 인력은 고학력의 현장경력이 풍부한 매우 우수한 인력풀이라 하겠다.

혼합반의 평균 학급수는 1.25개로 집계되었다.

학급수 1개가 78.1% 학급 2개 이상이 21.9%로 소인수 혼합반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유치원은 1개 학급임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유치원 설립별에 따라 소인수 혼합반을 운영하는 학급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는데(그림 2 참조), 공립유치원은 1개 학급이 78.9%, 사립유치원은 2개 학급 이상이 85.7%로 대조적인 현상을 보였다. 학급수가 2개 이상인데 기본교육과정시간대에 혼합반을 운영하는 경우는 특수반은 1개 운영한다거나, 만 5세아가 많아서 만 4세아반과 혼합하는 등 이유는 다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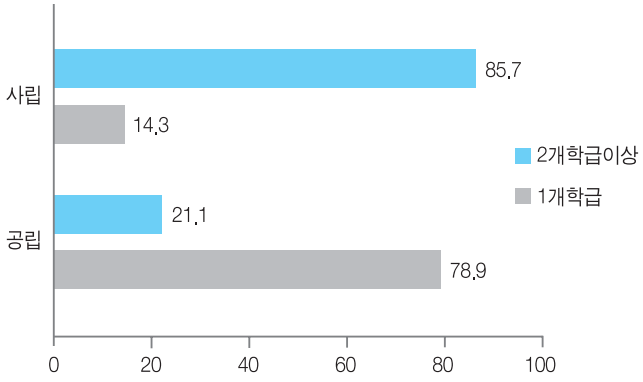
[그림 1] 소인수 혼합반 유치원의 학급수 현황

3. 연구결과

가. 소인수 혼합반 유치원 현황

1) 학급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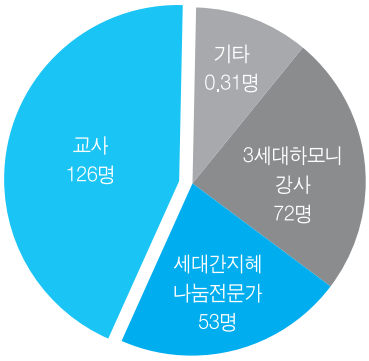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표집된 1,040개 유치원의 소인수 혼합반의 학급수, 교직원 수, 총 정원 및 재원아수 등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겠다. 먼저 소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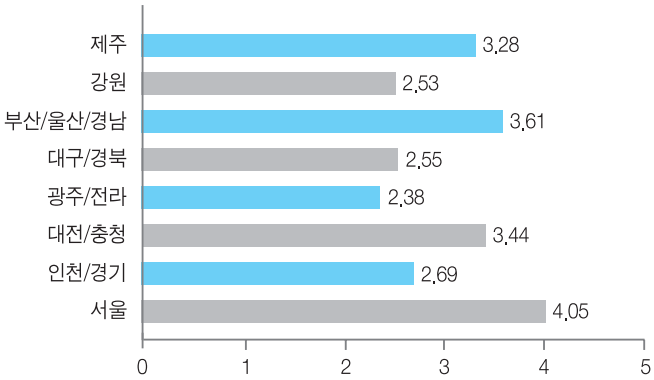
[그림 2] 유치원 설립별 소인수 혼합반 학급수 현황(%)

2) 교직원수

소인수 학급의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수는 평균 2.93명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교직원은 유치원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뜻한다. 이 중 교사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3세대하모니강사[4] 0.72명, 세대간지혜나눔전문가[5] 0.63명 순이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소인수 혼합반 교직원 현황



[그림 4] 지역별 소인수 혼합반 교직원 현황(명)

지역별로 보면 서울 4.05명, 부산/울산/경남, 3.61명, 대전/충청 3.44명, 제주 3.28명으로 전체 평균 2.93명보다 높았다. 교직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전라권으로 평균 2.38명이며 강원, 대구/경북이 뒤를 이었다.

3) 유아정원수

소인수 혼합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총 정원수는 평균 21.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별로는 공립이 평균 20.80명으로 사립의 51.0명보다 정원수가 절반에도 못 미치며 전체 평균보다도 적었다. 학급 수별로는 1개 학급의 정원수는 평균 약 15.8명, 2개 이상 학급의 정원수는 평균 40.6명으로 보고되었다.

전체 평균보다 정원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57.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24.7명, 대전/충청 23.42명 순으로 나왔다. 이에 비해 강원 15.26명, 제주 16.31명, 대구/경북 16.30명, 광주/전라 16.69명으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표 2 참조).

4) 유아, 부모, 할머니 3세대가 함께 아이를 돌봐주는 이미지로 육아경험이 풍부한 40~60대 중고령 여성이 종일제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유급자원봉사인력을 의미함.
5) 특정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유치원 기본 운영을 보조 지원하는 중고령층 중심으로 소정의 유아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을 의미함.

〈 표 2 〉 소인수 학급 유치원의 정원수

단위: %, 명

구분	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명 이상	모름	평균
전 체	18.4	33.8	30.2	16.9	0.8	21.21
설립별						
공립	18.6	34.0	30.6	16.0	0.8	20.80
사립	.0	14.3	.0	85.7	.0	51.00
지역						
서울	.0	2.7	2.7	94.6	.0	57.89
인천/경기	9.5	24.1	51.8	14.5	.0	21.38
대전/충청	11.8	21.7	47.2	17.4	1.9	23.42
광주/전라	23.1	52.0	15.8	6.8	2.3	16.69
대구/경북	37.7	36.0	12.3	14.0	.0	16.30
부산/울산/경남	11.2	26.3	38.8	23.7	.0	24.78
강원	29.6	52.3	8.6	7.4	.0	15.26
제주	29.6	40.7	14.8	14.8	.0	16.31
학급 수						
1개	23.3	41.6	33.5	.7	.9	15.76
2개 이상	.9	5.7	18.4	74.6	.4	40.55

4) 유아재원아수

소인수 혼합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의 재원아수는 평균 18.53명으로 집계 되었다. 이는 총 정원수 21.21명보다 2.68명 적은 수치이다. 즉, 소인수 혼합반은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원아수를 연령별로 보면 만 3세 3.05명, 만 4세 6.06명, 만 5세 9.42명으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재원아수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54명으로 재원아수가 가장 많았고, 이에 비해 강원은 13.46명으로 재원아수가 가장 적었다. 총 정원수과 재원아수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대전/충청지역으로 그 차이가 5.27명이다.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지역으로 0.18명의 차이를 보였다. 설립별로는 공립유치원은 18.13명, 사립유치원은 48.0명으로 사립유치원의 재원아수가 훨씬 적었다. 그러나 정원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은 공사립을 불문하고 동일하다. 학급 수별로는 1개 학급의 재원아수는 평균 약 13.0명이고, 2개 이상 학급의 재원아수는 평균 약 38.7명이며 1개 학급의 유아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만 3세 2.4명, 만 4세 4.2명, 만 5세 6.3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적었다(표 3 참조).

〈 표 3 〉 소인수 혼합반 유치원의 재원아수

단위: 명

구분	만 3세	만 4세	만 5세	평균
전 체	3.05	6.06	9.42	18.53
설립별				
공립	2.90	5.91	9.31	18.13
사립	14.00	16.79	17.21	48.00
지역				
서울	6.46	21.11	27.97	55.54
인천/경기	2.19	6.52	10.00	18.71
대전/충청	3.63	5.41	9.11	18.15
광주/전라	3.46	4.64	6.01	14.11
대구/경북	2.07	4.71	8.53	15.31
부산/울산/경남	3.44	6.90	11.72	22.06
강원	3.01	4.69	5.75	13.46
제주	1.83	4.19	10.11	16.13
1개	2.38	4.21		
2개 이상	5.46	12.66		

나. 소인수 혼합반 유치원 운영실태

1) 혼합반 운영 이유

만 5세를 혼합반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근 지역에 유아수가 적어서 만 5세만으로 충원하기 어려워서'가 81.4%로 월등히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설립별로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립유치원은 '인가받은 학급수가 부족해서'가 42.9%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인근 지역에 유아수가 적어서 만 5세만으로 충원하기 어려워서'는 28.6%가 응답해 2순위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에서 '인가받은 학급수가 부족해서'를 응답한 경우가 40.5%로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많았다. 사립 유치원이 많은 서울은 혼합반 운영 이유가 다른 지역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 외의 나머지 7개 지역은 대부분 '인근 지역에 유아수가 적어서 만 5세만으로 충원하기 어려워서', '만 3세아 또는 만 4세아의 부모가 재원을 원해서', '인가받은 학급수가 적어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급수별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1개 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유아의 인구수가 적은 게 혼합반 운영의 가장 큰 이유이지만, 2개 이상 학급을 운영하는 유치원은 이유가 분산되었다(표 4 참조).

〈 표 4 〉 혼합반 운영 이유

단위: %(명)

구분	만5세아 만으로 충원 어려움	만 3,4세아 부모가 재원 원함	인가 학급수 부족	교사 인력 부족	기타	모름/ 무응답	계
전 체	81.4	11.1	5.3	0.4	1.4	0.4	100.0(1,040)
설립별							
공립	82.2	11.1	4.8	.4	1.2	.4	100.0(1,026)
사립	28.6	7.1	42.9	.0	21.4	.0	100.0(14)
	X^2(df)=82.35(5)***						
지역							
서울	18.9	27.0	40.5	.0	8.1	5.4	100.0(37)
인천/경기	85.5	7.7	4.5	1.4	.5	.5	100.0(220)
대전/충청	76.4	12.4	6.8	.0	3.7	.6	100.0(161)
광주/전라	84.2	13.1	2.7	.0	.0	.0	100.0(221)
대구/경북	89.5	4.4	2.6	.0	3.5	.0	100.0(114)
부산/울산/경남	84.2	11.2	3.9	.0	.7	.0	100.0(152)
강원	84.0	11.1	3.7	1.2	.0	.0	100.0(81)
제주	83.3	14.8	1.9	.0	.0	.0	100.0(54)
	X^2(df)=196.09(35)***						
교사경력별							
10년 미만	79.7	9.9	7.5	.3	2.0	.6	100.0(345)
10~20년 미만	77.1	15.4	4.4	.4	2.2	.4	100.0(227)
20~30년 미만	84.9	10.1	3.8	.4	.7	.0	100.0(445)
30년 이상	82.6	4.3	8.7	.0	.0	4.3	100.0(23)
	X^2(df)=28.52(15)*						
교사학력별							
전문대졸	83.2	7.6	6.7	.8	1.7	.0	100.0(119)
대졸	81.0	12.0	4.6	.4	1.7	.4	100.0(526)
대학원졸	81.5	10.9	5.8	.3	1.0	.5	100.0(395)
	X^2(df)=5.23(10)						
학급 수							
1개	88.1	8.3	2.6	.2	.6	.2	100.0(812)
2개 이상	57.9	21.1	14.9	.9	4.4	.9	100.0(228)
	X^2(df)=118.63(5)***						

* p 〈 .05, *** p 〈 .001.

2) 혼합반 수업 운영 방식

혼합반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특정연령에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수업시간을 안배한다' 30.7%, '수업내용에 따라 다르다' 28.3%, '만 5세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22.0% 순으로 각 항목에 비교적 골고루 응답하였다.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이 '특정연령에 치우지지 않고 골고루 시간을 안배함'이 62.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강원도와 대전/충청은 '수업내용에 따라 다름'이 각각 45.7%, 44.1%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와 부산/울산/경남은 '만5세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함'이 각각 48.1%, 35.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교사경력이 많을수록 특정연령에 치우지지 않고 골고루 시간을 안배해서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 표 5 〉 혼합반 수업 운영 방식

단위: %(명)

구분	골고루 수업시간 안배	수업 내용에 따라 다름	만 5세아 중심	원아수 많은 연령중심	만 4세아 중심	만 3세아 중심	기타	계
전 체	30.7	28.3	22.0	10.4	7.0	0.4	1.3	100.0(1,040)
설립별								
공립	30.1	28.5	22.3	10.4	7.0	.4	1.3	100.0(1,026)
사립	71.4	14.3	.0	7.1	7.1	.0	.0	100.0(14)
	X^2(df)=12.17(6)							
지역								
서울	62.2	27.0	2.7	5.4	2.7	.0	.0	100.0(37)
인천/경기	26.8	18.2	25.9	18.2	10.5	.5	.0	100.0(220)
대전/충청	23.6	44.1	13.7	8.1	5.6	.6	4.3	100.0(161)
광주/전라	37.1	33.0	14.9	8.6	5.9	.5	.0	100.0(221)
대구/경북	33.3	30.7	21.9	5.3	4.4	.9	3.5	100.0(114)
부산/울산/경남	27.6	14.5	35.5	12.5	8.6	.0	1.3	100.0(152)
강원	27.2	45.7	13.6	3.7	9.9	.0	.0	100.0(81)
제주	27.8	11.1	48.1	11.1	1.9	.0	.0	100.0(54)
	X^2(df)=177.91(42)***							
교사경력별								
10년 미만	30.1	30.1	15.4	12.2	10.7	.6	.9	100.0(345)
10~20년 미만	32.2	30.4	17.6	12.3	6.6	.0	.9	100.0(227)
20~30년 미만	29.7	26.5	29.2	8.1	4.7	.2	1.6	100.0(445)
30년 이상	43.5	13.0	26.1	8.7	.0	4.3F	4.3	100.0(23)
	X^2(df)=53.98(18)***							
교사학력별								
전문대졸	34.5	22.7	26.1	11.8	4.2	.0	.8	100.0(119)
대졸	30.6	28.1	20.2	11.6	8.2	.6	.8	100.0(526)
대학원졸	29.6	30.1	23.3	8.4	6.3	.3	2.0	100.0(395)
	X^2(df)=13.82(12)							
학급 수								
1개	30.9	28.2	23.4	9.0	6.7	.4	1.5	100.0(812)
2개 이상	29.8	28.5	17.1	15.4	8.3	.4	.4	100.0(228)
	X^2(df)=12.49(6)							

*** p 〈 .001.

3) 혼합반 수업 운영의 어려운 점

혼합반으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연령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못함'이 50.8%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발달단계가 달라서 교육을 제대로 하기 못함'이 27.5%을 응답하였다. '교사의 휴식시간이 거의 없음'이 9.2%에 불과했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은 혼합반 수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수업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혼합반이란 수업 환경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유아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 표 6 〉 혼합반 운영의 어려운 점

단위: %(명)

구분	연령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실시 못함	유아 발달 단계의 상이함	교사 휴식 시간 부족	유아 개개인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함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함	기타	모름/무응답	계
전 체	50.8	27.5	9.2	6.0	5.9	0.6	0.1	100.0(1,040)
설립별								
공립	50.9	27.9	9.2	5.8	5.6	.6	.1	100.0(1,026)
사립	42.9	.0	14.3	14.3	28.6	.0	.0	100.0(14)
	X^2(df)=18.69(6)**							
지역								
서울	29.7	24.3	13.5	10.8	18.9	2.7	.0	100.0(37)
인천/경기	53.6	30.5	9.1	3.6	3.2	.0	.0	100.0(220)
대전/충청	42.2	34.2	14.9	3.7	5.0	.0	.0	100.0(161)
광주/전라	45.7	27.6	9.0	9.0	7.7	.5	.5	100.0(221)
대구/경북	64.0	21.1	.0	4.4	7.0	3.5	.0	100.0(114)
부산/울산/경남	53.9	25.0	10.5	5.9	4.6	.0	.0	100.0(152)
강원	50.6	24.7	12.3	8.6	3.7	.0	.0	100.0(81)
제주	63.0	22.2	1.9	5.6	7.4	.0	.0	100.0(54)
	X^2(df)=94.10(42)***							
교사경력별								
10년 미만	52.2	29.0	5.5	7.0	5.5	.9	.0	100.0(345)
10~20년 미만	49.8	31.7	7.9	4.0	6.2	.4	.0	100.0(227)
20~30년 미만	50.1	24.7	13.0	5.8	5.8	.2	.2	100.0(445)
30년 이상	52.2	17.4	4.3	13.0	8.7	4.3	.0	100.0(23)
	X^2(df)=30.25(18)*							

(표 6 계속)

구분	연령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실시 못함	유아 발달 단계의 상이함	교사 휴식 시간 부족	유아 개개인을 세심하게 돌보지 못함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함	기타	모름/ 무응답	계
교사학력별								
전문대졸	52.1	27.7	7.6	5.0	7.6	.0	.0	100.0(119)
대졸	50.0	27.8	8.9	6.7	5.7	.8	.2	100.0(526)
대학원졸	51.4	27.1	10.1	5.3	5.6	.5	.0	100.0(395)
	X^2(df)=4.46(12)							
학급 수								
1개	51.4	27.1	10.0	4.9	5.8	.7	.1	100.0(812)
2개 이상	48.7	28.9	6.6	9.6	6.1	.0	.0	100.0(228)
	X^2(df)=11.36(6)							

* p < .05, **p < .01, ***p < .001.

설립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어려운 점 1순위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못함'으로 동일하지만 응답 비율에서 국공립이 50.9%로 사립 42.9%보다 높았다. 2순위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국공립은 전체와 동일하게 '발달단계가 달라서 교육을 제대로 하기 못함'이 27.9%로 나온 반면, 사립유치원은 '발달단계가 달라서 교육을 제대로 하기 못함'을 응답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대신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함'이 28.6%로 2순위로 보고되었다.

지역별로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못함' 항목에서 서울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응답하기는 했지만 비율에서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29.7%를 차지하였다. 이 항목은 제주가 63.0%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표 6 참조).

4. 맺음말

소인수 혼합반 대상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 보면, 1개 또는 2개 학급의 소인수 혼합반은 대부분 공립병설유치원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학급수는 1.25개, 교사는 평균 1.26명, 만 5세 재원아수는 평균 9.42명으로 집계되었다. 혼합반 운영의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연령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못함'이 50.8%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지역과 유치원 설립주체(공립, 사립)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서울의 평균 학급수는 2.24개, 교사 평균 2.24명, 만 5세아 재원아수 평균 27.97명으로 전체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 혼합반을 운영하는 이유에서도 '인가받은 학급수가 적어서'를 사립유치원과 서울지역에서 1순위로 꼽아서 전체 결과와 달랐다.